

구성주의 교육관에 기초한 중등음악교수모형 개발 연구*

최 은 식**

차 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선행연구
 - 3. 연구의 절차와 방법
- II. 이론적 배경
 - 1.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
 - 2. 학습심리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 3. 학습원리로서의 구성주의
 - 4. 교수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 III. 구성주의기반 중등음악 교수모형
 - 1. 교수모형
 - 2. 교수-학습 계획안
- IV. 요약 및 제언

* 본 연구는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과제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세계는 산업생산 중심의 환경에서 지식-정보 기반사회로의 빠른 전이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탈지역화, 정보화, 문화자원화의 개념이 놓여있으며, 이들 중심 개념들은 정치, 교육, 상업, 산업 등 사회의 모든 하부 구성영역의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정보 기반사회는 학교의 교과들 중 예술교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20세기 산업기반사회는 상품과 재화의 대량생산능력에 의해 한 사회의 경쟁력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많은 비중이 대량 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수리(數理)·과학적 지식과 기능의 학습에 두어졌다.

그러나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탈산업화 사회의 특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이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창의성을 교과교육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한 사회의 경쟁력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술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음악교과에 있어서도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음악교육은 개인의 음악 예술적 소양의 증진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를 위하여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위대한 예술작품의 소개하고 전달하는 '객관주의적' 또는 '제재 중심적' 교육방법이 학교음악교육의 주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현장학교의 음악교육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재곡 중심의 교수전략은 '결과물'에 대한 경험의 제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예술의 전 과정에 대한 안목을 기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음악교육이 개인의 예술적 소양증진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의 창의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물' 보다는 '예술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객관주의적 교육사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음악교과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회 문화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구성주의는 학습대상에 대하여 학습자가 이전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 이해의 틀(schema)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피아제나 브루너 등의 인지심리학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인지주의자들이 학습을 위한 이해의 틀을 고정적으로 본 반면 구성주의

는 학습자의 이해의 틀이 학습대상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성주의기반의 교수방법은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하여 단순한 사실이나 기술을 축적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구성주의 기반의 음악교수방법은 결과물로서의 음악 뿐 아니라 ‘음악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음악에 대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생산자로서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현장학교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정보통신 기자재(ICT 기자재)는 소리의 생산, 재생, 및 보급을 전문적인 훈련과정 없이도 가능하게 해 줌으로서 학습자의 음악생산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예술적 과정에 대한 통찰은 학습자에게 음악예술에 대한 본질적 이해 뿐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기술(creative thinking skills)의 훈련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객관주의적 교수모델에 대한 지식기반사회의 한 대안으로서 학습자가 음악생산자로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주의 기반의 중등음악교수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흐름은 활동중심 교수모델의 개발¹⁾, 구미음악 교수법의 적용방안 연구²⁾, 전통음악의 교수방안 탐색³⁾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음악교과와 교수과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음악수업이 이론이나 가창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공헌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음악수업과 관련된 이들 연구들은 주로 ‘객관주의적’, ‘제재 중심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과에 대한 구성적 접근이나 음악의 전 과정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증진시키는 것에까지 나아

- 1) 임미경, “음악학습지도의 다양화 방안,” 音樂教育研究 21, 5-17쪽;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음악과 수업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가창 및 기악중심 교수학습지도 모형 및 수업안 개발 I (서울: 교육개발원, 1993); 장창환,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연구,” 音樂教育研究 12, 9-34쪽; 길애경, “음악교육의 재접근법을 적용한 유아 및 저학년 아동의 창작지도,” 音樂教育研究 14, 41-54쪽.
- 2) 오숙경, “울프와 코다이 음악교육이론의 비교 고찰,” 音樂教育研究 1, 5-15쪽; 권덕원, “음악교육에 있어서 개념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근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이흥수, “줄탄 코다이의 교육이념과 한국음악교육계의 과제,” 音樂教育研究 9, 41-56쪽; 이연경, “코다이 음악지도법과 국내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音樂教育研究 9, 57-96쪽; 김경란, 중학교 1학년 음악에 적용된 Orff, Kodaly, MMCP 수업안 연구,” 音樂教育研究 11, 123-146쪽.
- 3) 윤명원, “전통음악풍의 창작지도에 관한 연구,” 音樂教育研究 14, 41-54쪽; 박학범, “로그래밍화 습지도를 통한 지각적 감상이 전통음악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 音樂教育研究 10, 173-223쪽; 안재신·한애향, “전래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음악수업이 유아의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音樂教育研究 18, 1-50쪽.

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컴퓨터 활용에 관한 연구들은⁴⁾ 음악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학습보다는 음악학습영역의 한 분야에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포함하면서 구성주의적 관점과 디지털 매체의 통합을 통하여 음악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거시적 음악 교수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연구의 절차와 방법

본 연구는 1) 기초연구; 2)구성주의 중등음악교수 기본모형 개발; 3)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그리고 4) 최종모형개발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1) 기초연구

기초연구단계에서는 (1) 기초문헌자료 수집, (2)전문가 자문, 그리고 (3) 현장요구 분석을 하였다.

2) 구성주의 음악교수 기본모형 개발

기초연구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중심내용인 구성주의 기반의 중등음악교수 기본모형을 개발하였다. 음악교수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개발되었다 :

- ① 음악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을 경험시킬 수 있는 모형
- ②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형
- ③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부합되는 모형
- ④ 음악학습의 제요소(창작·연주·감상·이해)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
- ⑤ 다른 예술이나 교과에 연계(전이)할 수 있는 모형

3)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개발된 기본교수모형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및 현장

4) 문대동, “소리탐색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 音樂教育研究 15, 349-402쪽; 최은식, “창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주의와 하이퍼 미디어,” 서울교육대학교 제3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57-63쪽; 임미경·박승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감상 교수-학습 자료개발 연구,” 音樂教育研究 21, 137-153쪽.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음악교육정책전문가, 음악교육연구전문가, 사범계열 교수 등의 전문가들과 중등음악교사들이 참여하였다.

4) 최종모형개발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제안된 내용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중등음악교수모형이 개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용어가 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사용된 시기는 20세기 후반으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이전의 교육적 관점들과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다양한 관점의 구성주의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구성주의’ 기반의 이론들은 개별 학습자가 학습의 내용을 주체적·능동적으로 조직해 나간다고 하는 학습자 중심의 관점과 학습의 목표를 유용성(viability)에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식구성의 주체성·주관성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인식론(epistemology), 학습심리(psychology of learning), 학습원리 (principles of learning), 또는 교수방법(methods of teaching)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지식을 표상(表象)으로 간주하는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표상주의는 인간의 지식과 외부세계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때 지식이란 외부세계에 대한 형식화 또는 추상화로 간주된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에 대해 각각 형이상학적 인식론과 실재론적 인식론의 대비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지식을 궁극적·객관적 대상의 표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공통점을 가졌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소피스트학파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영원하거나 객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지식도 가변

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 지식구성의 상대성을 주장한 소피스트학파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의 초기형태를 보여준다.

그리스 시대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체계적으로 나타낸 학자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비코(Vico, Giambattista, 1668~1744)였다. 비코는 인간의 우주는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지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부정하였다.⁶⁾ 그 후 칸트는 오성(悟性, understanding)을 인식대상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봄으로서 인간에게 대상을 구성하는 개념작용능력의 관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오성을 감성이나 이성과 다른 인식능력으로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의의를 가진다.⁷⁾

철학적 인식론의 한 영역으로서의 구성주의적 관점은 20세기에 후반에 들어와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객관주의 즉, 대상과 인식주체의 이원적(二元的) 구분을 전제로 하는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⁸⁾

2. 학습심리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교육 분야에서는 20세기 후반 피아제, 부르너, 및 비고츠키 등에 의해 연구된 교육인지심리학의 발견들이 구성주의의 원리들과 연계되어 실천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구성주의는 매우 다양한 외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개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로 대별할 수 있다.

글레이저펠트(von Glaserfeld)에 의해 대표되는 급진적 구성주의는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지식은 사고의 주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급진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주관적이다.⁹⁾

이에 비하여 인지적 구성주의는 객관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피아제의 인지이론들은 한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지식을 어떻게 구성 또는 조직화 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

5) 프로타고라스는 “어떠한 사상이라도 어느 만큼은 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철학사전, 중원문화사, 1987, 100쪽).

6) 육영해, “구성주의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 교육학연구 36-1, 171-186쪽.

7) 황세연,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1987), 489쪽.

8) 증명 가능한 지식체계만을 참된 지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근거한 근대성의 개념은 20세기 후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등에 의해 강력한 도전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구성주의도 동일한 흐름의 교육학적 적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9) von Glaserfeld, Ernst, (김판수의 역), 급진적 구성주의: 앎과 학습의 길, (서울: 원미사, 1999), 17쪽.

으며, 그러한 면에서 피아제의 인지이론은 합리적 또는 인지적 구성주의의 논리적 기초가 되고 있다.¹⁰⁾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고츠키 심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관점으로 개인의 지식구성을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 점차 개인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비고츠키는 학습의 과정을 주의, 감각, 지각, 기억 등의 기본정신기능(elementary mental functions)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등정신기능(higher mental function)으로의 발달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고등정신기능을 습득함에 있어 동료나 부모,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¹⁾

3. 학습 원리로서의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구성주의를 독립된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학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리(principles)로 이해한다. 즉, 교수-학습에 있어 학습자 개개인의 선행경험(personal prior experiences)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고 학습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교류(social interaction)와 반성(reflection)을 통한 지식의 자발적 구성을 최대한 촉진시키는 것을 구성주의적 원리로 보는 것이다.

학습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¹²⁾:

- (1) 체험(참여)를 통한 학습 (learning by doing or participating)
- (2) 반성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reflection)
- (3) 협동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collaboration)
- (4) 실제적 성격의 과제중심 학습 (learning by authentic tasks)
- (5) 맥락화된 학습 (learning in the authentic environment)
- (6) 지식이나 사실의 이해에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learning toward communication)

이상의 학습 원리들은 객관적 지식의 단순 축적보다는 학습 내용의 개인적 유용성(personal viability)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 피아제의 도식이론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기제를 통해 지식의 틀(schema)을 개인이 내재적으로 변형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11)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8), 49-54쪽.

12) 강인애,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와 적용," *교육이론과 실천* 8-1, 23쪽; 박수자, "구성주의와 언어학습경험," *국어교육연구* 5, 143-176쪽.

4. 교수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1) 일반 교수이론

교수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구성주의의 인식론과 학습원리를 적용한 수업이론을 의미한다. 다양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인지적 도제모델(cognitive apprenticeship), 앵커드 교수모델(anchored instruction model), 인지적 융통성모델(cognitive flexibility model), 문제 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성주의기반의 교수이론들이다.¹³⁾

인지적 도제모델은 학습자가 특정영역의 전문가들의 사고과정을 모델링(modeling)-교수적 지원(scaffolding)-지원의 점차적 축소(fading)의 단계를 거쳐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모델로서 학습내용이 학습맥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지적 도제이론은 인지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목적이란 점에서 전통적 도제학습과정과 다르다.

앵커드 교수모델은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복잡한 학습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자가 문제상황에서 앵커(anchor)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다.

인지적 융통성모델은 학습자가 지식의 다양한 표상(representation) - 재학습(revisiting) - 조망교차(multidimensional landscape criss-crossing)의 과정을 통해 비구조화된 교차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문제중심학습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구성주의 교수모델로서 의학교육에서 출발하여 일반화된 교수방법이다. 문제중심학습은 집단학습-개별학습-집단학습의 큰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문제사례제시-자기주도적 학습-소집단학습-일반화-반성의 구체적 단계를 거친다. 학습자는 문제의 정의-가설의 검증-평가-문제의 수정-새로운 가설 검증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해간다.

2) 구성주의적 음악교수이론

가) MMCP

MMCP는 부르너의 학습이론을 음악교육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출발하였다. 부르너의 이론은 피아제의 학습이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지론은 구성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MMCP는 음악학습자와 음악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MMCP는 또한, 음악을 객관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과의 계속적인 확장과정으로 본

13) 송해덕,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설계 모델들의 특성과 차이점 비교분석 연구,” 教育學研究, 36, 1쪽.

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이다. MMCP는 첫째, 사고의 투영(projection)이며 동시에 사고의 명료화(clarification); 둘째, 음악은 현재(the present)에 대한 감각(sensitive to)이며 동시에 현재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 셋째, 개인의 창조적 성취를 위한 계속적 탐구의 도구라고 본다.

따라서, 음악학습에서 분석적 지식은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음악적 기능보다는 음악적 의미(musical meaning)가 강조되어야 하며, 음악활동은 창조적 성취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기존의 경험(past experience)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음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viable)고 주장하였다.

MMCP의 교수원리는 학습자의 학습이 음악가가 실제 맥락 속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고유한 음악가적 행위를 제시하였다:

- (1) 청각적 변별(aural identification and discrimination)
- (2)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
- (3) 표현(expression by singing and/or playing)
- (4) 평가(evaluation)
- (5) 해석(interpretation)
- (6) 보조적 기능(supportive skills)

MMCP는 위의 음악고유적 행위들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의 발견에 의해 습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시대(focus on Today)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서 구성주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¹⁴⁾

나) 생성적 교수이론

생성적 교수이론(generative instruction)은 보드만(Boardman)에 의해 개발된 음악수업의 구성주의적 모델이다.¹⁵⁾ 생성적 수업이론은 인간이 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며, 음악은 사회적 상징으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성적 교수방법은 맥락(제재, context), 개념(content), 활동(behavior), 양식(mode), 교수학습전략(strategy)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성적 교수방법에서는 활동을 강조하는 기능중심의 음악수업모델과는 달리 음악적 개념 또

14) Thomas, Ronald B, 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Office of Education, Bureau of Research, 1970).

15) 이경인,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02-14-3, 134-189쪽.

는 상징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활동이 이루어진다. 생성적 교수방법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악적 경험이 반드시 심미적(aesthetical)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심미적 경험이 음악교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 <표 1>은 생성주의적 교수·학습 계획안 모형이다.¹⁶⁾

<표 1> 생성적 교수·학습 계획안 모형

제재 (Context)	개념 (Content)	활동 (Behavior)	표현양식 (Mode)	교수학습전략 (Strategy)
· 제재곡 · 참고곡 · 감상곡	· 리듬 · 가락 · 화성 · 형식 · 셈여림 · 빠르기 · 음색 · 아티큘레이션 · 조직 · 표현성 · 양식	· 연주하기 -노래 -악기연주 · 표현하기 -신체표현 -그림표현 -언어표현 -악보표현 · 창작하기 -즉흥창작 -작곡 · 감상하기	· 신체적 · 영상적 · 상징적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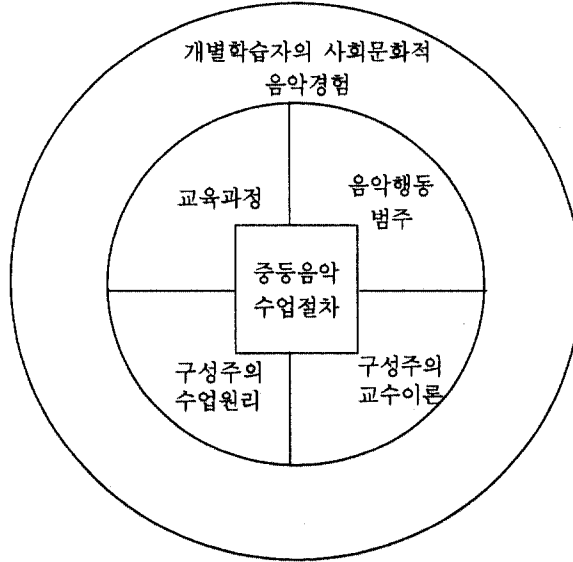
Ⅲ. 구성주의 기반 중등음악 교수모형

1. 교수모형

<그림 1>은 중등학년급에 있는 학습자의 특성과 구성주의의 방법 및 원리, 그리고 음악교과 자체의 학습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모형이다. 구성주의 중등음악 교수모형은 개별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음악경험, 교육과정, 음악행동범주, 구성주의 수업원리, 구성주의 교수이론, 수업절차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16) 전계서, 161쪽.

<그림 1> 구성주의 기반 중등음악 교수모형



1) 개별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음악경험

구성주의적 수업의 출발은 학습의 개별성이다. 학습의 개별성은 학습자 개개인이 음악적 경험에 있어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른 음악적 경험과 개념의 틀(schema)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음악수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과 개념의 틀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이를 수업의 과정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전 음악보다는 10대 취향의 대중음악이 중등학교 시기의 학습자들의 음악적 경험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구성주의적 음악수업의 출발점은 이러한 종류의 음악을 통해 형성된 개념과 느낌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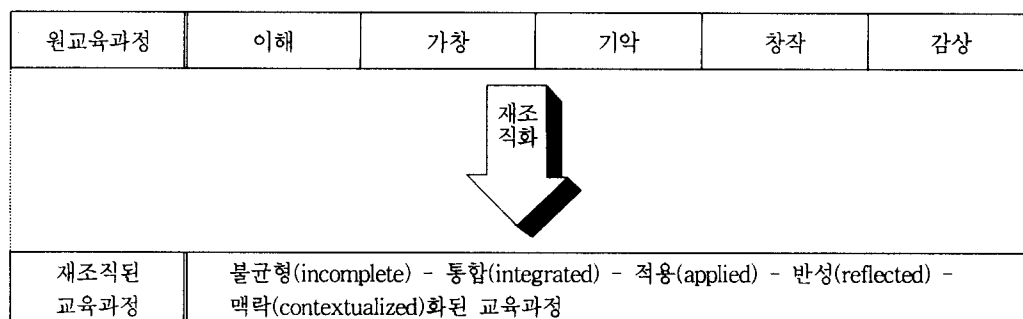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중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수업이 계획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수업의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분석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적 틀은 구성주의적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¹⁷⁾ 따라서,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구성주의적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림 2>는 구성주의적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조직화의 과정을 나타낸다. 교육과정의 재조직화는 학습의 조건에 따라 학습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림 2> 교육과정의 구성주의적 재조직화



3) 음악행동범주

구성주의적 원리는 교과와 성격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업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음악수업은 구성주의적 원리들과 음악교과와 본질적 특성과의 통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따라서 음악의 본질적 특징을 수업설계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악교과가 다른 교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 학습경험의 질(quality of learning experience)에 있다. 음악수업에 일어나는 음악적 경험은 다른 어떤 경험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하고 고유한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이다. 이러한 미적경험은 학습자의 음악적 배경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습자가 다른 어떤 교과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음악적 특질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또한, 학습자가 경험해야 할 미적경험의 질은 전문음악가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MMCP는 음악가의 전문적 행위를 여섯 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MCP의 음악행동범주를 교수모델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개발

17)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내용체제가 이해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또다시 음악의 7가지 공통요소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요소로 세분된다. 각각의 요소들은 다시 학년별로 상세화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된 모형에 사용된 음악행동범주를 나타낸다.

<그림 3> 음악행동범주

음악적 행동범주	의 미
청각적 개념형성 (aural concept formation)	청각적 암기(aural memory)를 통한 음악적 개념형성
창조적 사고 (creative thinking)	음악적 재료(musical idioms; musical words; musical patterns)의 창의적 재구성
표현 (expression)	기악이나 가창, 신체를 통한 표현
평가 (evaluation)	음악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
해석 (interpretation)	작품의 해석
보조적기능 (supportive skills)	음악활동에 필요한 비음악적 기능(악기수리, 오디오장비 조작 등)

4) 구성주의 교수이론

구성주의 수업에서 교수방법은 학습의 목표의 성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수업의 장면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음악교과에만 특정적으로 적합한 구성주의 교수방법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있다고 할지라도 인위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교수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점은 학습의 특성에 달려있다.

<표 2>는 학습과제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교수방법의 예를 나타낸 표이다. 음악수업의 설계자는 다음 표에 제시된 교수방법 이외에 수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표 2> 학습과제의 특성에 따른 구성주의 교수방법의 예

학습과제의 성격	문화적 적용·기능의 숙달을 위한 과제	학습자 주도적인 과제	개념형성위주의 과제
구성주의 교수방법	인지적 도제	문제중심	생성적

5) 구성주의 수업원리

구성주의적 수업원리는 수업방법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principles)를 의미한다. 구성주의적 수업원리는 수업목표, 학습환경, 교수-학습매체, 교수-학습활동, 평가의 과정에 적용된다. <표 3>은 음악수업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성주의적 수업원리를 나타낸다.

<표 3> 구성주의 수업원리

수업요소	구성주의 수업원리
학습목표	•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학습목표 설정 •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학습목표 설정 • 개념의 적용을 유도하는 학습목표 설정 • 신중한 성찰을 유도하는 학습목표 설정 • 지식이나 기능을 도구 또는 매개로 활용하는 학습목표 설정 • 기존개념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학습목표 설정 • 학습자가 성취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학습목표 설정 • 학습자에게 유용한(viable)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 실상황(authentic context)에 유사한 환경 조성 •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조성 •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 • 다양한 표현양식(expressional modes)의 실현이 가능한 환경
교수-학습매체	•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매체 • 학습자가 유연하게 조작할 수 있는 매체(ICT) • 사회적 교류의 중재로서의 매체 •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암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 • 학습자의 경험과 유리되지 않은 매체 • 다양한 형태의 매체 • 일차적 자료

<표 3> 구성주의 수업원리 계속

수업요소	구성주의 수업원리
교수-학습 활동	• 학습자의 자율성 격려 • 모둠내, 모둠 간 활발한 상호작용 지도 • 충분한 시간할당 • 적절한 수준의 학습지원 제공(scaffolding) • 개별학습, 모둠학습의 유연한 활용 • 개별적 피드백 제공 • 다양한 학습자원의 활용 및 탐색 격려 • 학습활동 요소로서 자기 및 동료 평가활용 • 지식이나 기능의 축적보다 소통(communication) 및 활용 강조 • 개방적 발문 • 학습자 반응의 정교화 • 격려
평가	• 반성적(reflective) 평가 • 과정중심 평가 • 학습활동과 통합된 평가 • 맥락적 평가

6) 수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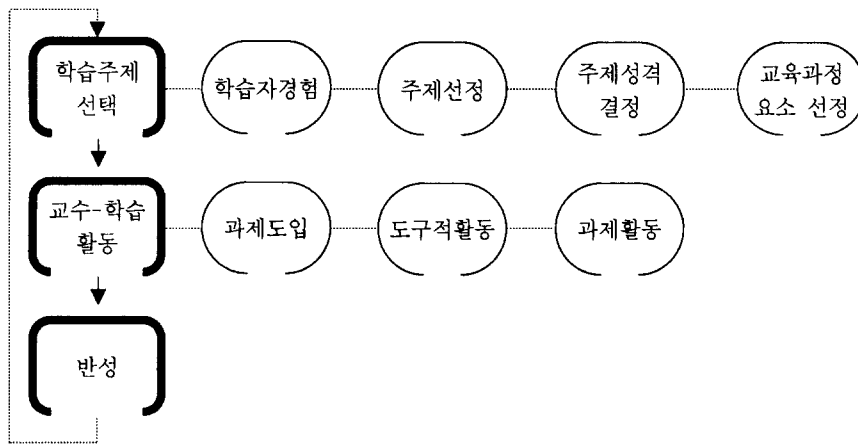
구성주의 기반의 음악수업 계획의 최종단계는 수업절차의 설계이다. 구성주의적 음악수업의 절차는 구성주의의 원리들과 음악자체의 원리 통합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교수모형의 수업절차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자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수업절차는 학습주제선택 → 교수-학습활동→반성의 대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되었다. 학습주제의 선택은 다시 학습자의 경험→주제선정→주제성격결정→교육과정요소선정의 하위단계를 가진다. 주제의 선정은 학습자의 구성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적 지식이나 기능보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의 성격은 음악활동의 여섯 가지 범주 가운데 학습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제와 가장 밀접한 활동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주제의 성격이 결정되면 교육과정에서 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선정한다.

교수-학습활동은 과제도입→도구적 활동→과제활동의 세부단계를 가진다. 과제도입활동은 학습자들 스스로가 주제의 맥락 안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선택하게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구성주의적 활동이다. 이 단계는 전통적인 수업도입단계의 학습모표제시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구성주의적 수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도구적 활동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조건에 되는 지식이나 기능들을 학습하는 단계로서 전통적인 수업활동의 양상을 따른다. 과제활동은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한 과제를 모둠이나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서 학습자의 과제수행 준비상태에 따라 다양한 도움(scaffolding)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된 수업절차의 마지막은 반성(reflection)단계로서 학습자는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음악적 경험의 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교화하게 된다. <그림 4>는 개발된 구성주의적 수업절차 모형을 나타낸다.

<그림 4> 구성주의적 수업절차 모형



2. 교수-학습 계획안 양식

구성주의적 중등음악교수모형의 틀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안을 개발하였다. 교수-학습안의 항목들은 큰 틀의 교수모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과제활동'항목의 여섯 가지 음악적 행동은 주제나 과제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4-1>은 개발된 교수학습 계획안 양식이며, <그림 4-2>는 개발된 교수-학습안을 적용한 실제 수업계획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4-1> 구성주의기반의 중등음악 교수-학습 계획안

학년		기간	총 _차시		
과제					
과제의 성격					
교육과정 요소					
교수-학습활동					
절차	활동내용				학습형태
과제도입					
도구적 활동					
과제활동	과제성격	환경	주요활동	도구	
	청각적 개념형성				
	창조적 사고				
	표현				
	평가				
	해석				
	보조적 기능				
반성					

<그림 4-2> 구성주의 음악교수 모형을 활용한 중등음악 교수-학습 계획의 예¹⁸⁾

학년	1학년	기간	총 4차시		
과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발표한다				
과제의 성격	창조적 사고, 표현, 음악관련 기능				
교육과정 요소	1. 창작 : (1) 가사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 (2)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기; (3)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들기; (4) 만든 곡을 발표하기; 2. 가창 및 기악 : (1)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연주하기); (2) 여러 유형의 반주하기; 3. 감상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기				
교수-학습활동					
절차	활동내용		학습형태		
과제도입	1.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음악 또는 소리에 대해 발표한다(전체) 2. 모듬별로 20가지 이상 탐색하여 발표하기(개별·모듬) 3. 주제선정하기(전체)		개별·모듬·전체학습		
도구적 활동	1. 악보 기보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음표, 쉼표 등)을 익힌다. 2. 기초적인 작곡 기법을 익힌다. 3. 다양한 생활 음악을 예시한다.		전체학습		
과제활동	과제성격	환경맥락	주요활동	도구	
	창조적 사고	• 창작실	• 상황에 적합한 가사 만들기 • 모듬 별 주제 선율 만들기 • 주제에 맞는 반주, 효과음 만들기	• 연주 가능한 가락 악기 • 오선악보 • 녹음기	모듬학습
	표현	• 주제에 맞는 환경 조성(예 : 생일파티, 무대, 광고제품 등)	• 주제에 맞는 표현 양식 탐색 (창법, 악기, 반주, 효과음 등) • 연습하기 • 발표하기	• 녹음기 • 창작 악보 • 악기	개별·모듬·전체학습
	음악관련기능	• 디지털 스튜디오	• 녹음 녹화 기기 사용법 익히기 • 창작한 음악을 오디오 CD나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	• 컴퓨터 • 공CD • 캠코더 • 마이크 • 소프트웨어	모듬·전체학습
반성	1. 음악을 만들어 본 느낌 발표하기 2. 음악을 만드는 과정 중 아쉬운 점 발표하기 3. 생활에서의 다양한 음악의 활용 가치를 이해하기			전체학습	

18) 당산서중학교 김승현 교사에 의해 개발되었음.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세기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확산된 정보화는 지식의 축적보다는 활용을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를 촉진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식자체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탈근대적 인식론이 강력하게 부각되었다.

변화하는 사회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사고의 유연성, 사회적 협동능력의 배양, 다문화적 관점의 수용, 및 문제해결능력 등으로 향하여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객관주의적, 실용주의적 관점의 전통적 음악교육은 유용성(viable)과 맥락(context)을 강조하는 교육의 일반적인 흐름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교육에서도 태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제재나 기능중심의 객관주의적 음악교수모델에 대한 구성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기본모형개발-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최종모형개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구성주의적 원리와 음악교과의 원리를 통합한 형태의 구성주의적 중등 음악교수모델과, 교수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한 교수-학습안 양식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구성주의 기반의 중등 음악교수 모형은 개별학습자의 사회문화적 경험의 큰 틀 안에서 교육과정, 음악행동범주, 구성주의 수업원리, 및 구성주의 교수이론을 통합하였다.

큰 틀로서의 교수모형을 단위 주제 또는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교수-학습안 양식은 구성주의적 학습에 적합한 통합적 대주제의 선정, 대주제에 포함된 교육과정 요소, 학습자의 선행경험, 학습목표의 효과적 성취를 위한 학습환경, 학습의 촉진재료로서의 학습자료, 차시(단위)학습 목표 항목을 중심으로 단위학습의 구성주의적 목표와 배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수-학습계획안의 교수-학습활동은 구성주의적 수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의 도입활동을 독립항목으로 두고 음악에 있어 구성적 활동의 재료가 되는 개념의 형성을 위한 활동단계와 형성된 개념을 맥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항목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성주의적 수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반성적 활동을 독립적인 활동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업의 시작부분에서 학습자 경험중심의 활동과 종결부분에서의 개별적 개념구성활동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수모형은 대안적 음악교수모형의 제시를 통한 중등음악 현장교육의 개선과 음악교과교육학의 교수이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된

모형이 중등학교 이외의 학년 급으로의 적용되고,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창의적 사고과정의 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구성주의 기반의 중등음악 교수모델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1) 개발된 교수모델을 적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안 형식의 개발
- 2) 개발된 모델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현장연구
- 3) 구성주의적 수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매체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4) 구성주의적 음악수업과 일반적 고등 사고능력의 신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참 고 문 헌

- Brooks, Jacqueline G. and Martin Brooks. 추병완의 역.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서울 : 백의, 1999.
- Fosnot, Catherine T. 외. (조부경 외 역). 구성주의: 이론, 관점, 그리고 실제. 서울: 양서원, 2001.
- Steffe, Leslie and Jerry Gale. (조연주의 역). 구성주의와 교육. 서울: 학지사, 1997.
- von Glaerfeld, Ernst. (김판수의 역). 급진적 구성주의: 알과 학습의 길. 서울: 원미사, 1999.
- Wersch, James. (한양대 사회인지발달연구모임 역). 비고츠키: 마음의 사회적 형성. 서울: 정민사, 1995.
- 강인에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문음사, 1999.
- 강인에.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와 적용.” 교육이론과 실천 8-1, 23-44.
- _____.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1997.
-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김판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학지사, 2000.
- 박수자. “구성주의와 언어학습경험.” 국어교육연구 5, 143-176.
- 박현주.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수-학습의 재개념화.” 교육과정연구 16-2, 277-295.
- 송해덕.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설계 모델들의 특성과 차이점 비교분석 연구.” 교육학연구 36-1, 187-212.
- 오만록. “구성주의에 근거한 문제중심 학습이 학업성취와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육영해. “구성주의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교육학연구 36-1, 171-186.
- 이명숙. “구성주의와 지식의 기제.”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논총 13, 19-40.
- 이종원. “급진적 구성주의와 Piaget의 재발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논총 13, 41-52.
- 이종일. “사회적 구성주의.”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논총 13, 1-18.
- 조미현·이용학. “인지적 도제방법을 반영한 교수설계의 기본방향.” 교육공학연구 9-1, 147-161.
- 조연순.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과 교과지식의 융합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으로서의 문제중심학습 고찰.” 초등교육연구 14-3, 295-316.
- 조영남. “구성주의 교수-학습.”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논총 12, 93-120.
- 조은순. “국제간 인터넷 프로젝트 중심학습의 수업설계 전략 고찰.” 교육공학연구 16-1, 247-266.
- 황세연.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1987.

- 최옥.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학습모형." *교육학연구* 39-3, 259-284.
- 최은식.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중학교 집단 기악 교수-학습 모델 및 자료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 RR 98-II-7, 200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14-3, 2002.
- 홍기칠. "구성주의와 교육공학."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논총* 12, 121-152
- Chen, Chi-der. "Constructivism in general music education: a music teacher's lived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993.
- Daniels, Harry. An Introduction to Vygotsky. New York: Routledge, 1996.
- Wang, Feng-Kwei. "A design framework for electronic cognitive apprenticeship." *JALN* 5-2, 131-151.
- Thomas, Ronald B. 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Office of Education, Bureau of Research, 1970.

ABSTRACT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ction Model for the Secondary School Music Based on Constructivist Educational Perspective

Eunshik Choi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st-modernistic views were widely spread over the globe at a very fast speed in the late 20th century. This new trend has forced the public schools to accommodate new educational tasks. Constructivism is one of the new trends which is changing in and out of today's schools. Constructivism emphasizes contextual and student-centered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ction model for the secondary school music based on constructivism. This study has been done through three phases: preliminary study - development of a prototype model - feedbacks from the experts - development of the final instruction model.

The constructivist music instruction model comprises six main elements: (1) the socio-cultural experience of the learner; (2) curriculum; (3) authentic musical behaviors ; (4) constructivist instruction methods; (5) constructivist instructional principles, and (6) teaching-learning process. The socio-cultural experience of the learner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that it is engaged in all other factors.

Finally, a lesson plan form and an example of a lesson plan were developed to adopt the instruction model into the actual music lesson.

주제어 : 구성주의 음악수업, 중등 음악 교수-학습